

합참차장에 나주 출신 이계훈 중장



나주 출신 이계훈(56·공사 23기) 중장이 합참차장에 임명됐다. 대북 군사정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에 이어 합참차장에 오른 이계훈 중장은 작전·전략통인 김태영 합참의장과 호흡을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합참 조직 개편 등의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합참차장은 해·공군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공군이 맡게 됐다. 대장이 맡는 합참차장은 한시적으로 중장계급으로 유지된다. 이 합참차장은 3년 시간이 넘는 비행기록을 보유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작전과 정보, 조직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국방부, 합참, 공군본부 등 다양한 정책 부서에 근무, 합참의장을 보좌할 적임자로 꼽혔다. 종교는 천주교, 부인 임숙자(54)씨와 2남.

기옥 금호석유화학 사장 '21세기 대상' 수상



기 옥(사진)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2일 21세기 경영인클럽(회장 이경식 전 경제부총리)이 주관한 '2008년 21세기 대상' 경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남상구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원장이 경영문화대상을 받는다. 부문별 수상자는 ▲기술=이희국 LG실트론 사장 ▲생산=정준 솔리테크 사장 ▲기획=조영주 KTF 사장 ▲경영=기옥 금호석유화학 사장 ▲관리=이중수 현대건설 사장 ▲국제협력=이희성 한국IBM 지사장 등이다. '21세기 대상'은 21세기경영인클럽이 지난 1986년 창립을 기념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23회를 맞는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광주대 김대호·전성철 '한전 광고 공모전' 대상



"일상 속의 전기는 공기와도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죠." 최근 열린 '제5회 한국전력공사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김대호(27·4년·사진 오른쪽), 전성철(28·4년)씨는 수상 이유에 대해 이렇게 자랑했다. 김씨는 "한전이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성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쇄광고·TV광고·인터넷·웹리더 등 4개 부문으로 나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인쇄광고 부문에 '빛이 있는 곳에'라는 작품을 공동 출품해 전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혼성그룹 거북이 리더 터틀맨 사망



3인조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본명 임성훈·38)이 2일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을 앓아온 터틀맨은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거북이의 소속사 측은 "집에서 오늘 오후 연락이 왔다"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빙고' '비행기' 등을 히트시킨 거북이는 5집 타이틀곡 '심랄라'에 이어 후속곡 '마이 네임(My Name)'으로 활동 중이다.

2일 출범 '빛고를 결식학생 후원재단' 고제철 이사장

"굶주리는 학생 없게 10년간 20억 지원"



"지금어 어느 시대인데, 밥 굶는 학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식학생 제로(ZERO)화'를 위해 2일 출범한 '빛고를 결식학생 후원재단' 고제철(78)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내 일생의 마지막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법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매년 총 25억 원의 기금을 조성, 2억5천만 원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두고 22억5천만 원으로 연 5천여 명의 광주지역 결식학생들을 지원하게 된다. 고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송원문화재단이 매년 2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비롯,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게 된다. 10년간 모이게 될 기본재산 25억 원은 항구적인 결식학생 지원사업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고 이사장은 "북한의 못 먹는 주민들을 위해 해마다 상당한 양의 쌀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광주지역의 결식학생들이 수천 명을 헤아린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법인 출범의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법인 형태의 재단을 만들어

결식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생각에 박광태 광주시장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을 찾아가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고 이사장은 "송원원학, 송원문화재단 및 사업체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오고 있지만 오늘부터 맡게 되는 '빛고를 결식학생 후원재단'의 이사장 자리는 매우 특별하다"며 "조그만 움직임이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능동적이고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이준기 펄시콜라 중화권 모델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준기가 펄시콜라의 중화권 모델로 발탁됐다. 홍콩의 차이이린(蔡依林)과 구텐러(古天樂), 대만의 나지상(羅志祥) 등 각각의 청춘 스타와 함께다. 이준기는 1일 홍콩에서 열린 펄시콜라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모델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톱스타 수준이라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권해호 CO2 행사 참석

영화배우 권해호(43)씨가 '패적인 광주 만들기'에 앞장섰다. 권씨는 2일 광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CO2 프라미스(Promise)' 선언식에 참석해 '자전적 타기' '걷기 생활화'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CO2 프라미스'는 일상 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CO2 저감 운동. 전남 송지면이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소개한 그는 "광주에 와서야 광주시가 2013해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광주시가 반드시 U 대회를 개최하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윤학자 여사 참된 사랑에 감동"

추성훈 선수, 음반개런티 전액 목포 공생원에

"일본인으로 한국에 와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을 만들고 4천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다투치씨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기부하게 됐습니다." 재일교포 격투기 스타 추성훈(33·일본명 야기야마 요시히로·사진)이 2일 오후 목포시 대반동 목포공생원을 방문해 컴필레이션 음반 '2008 연가'에 참여해 받은 개런티 전액을 기부했다. 추성훈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오후 4시 일본으로 떠났다. 공생원 홍보대사를 맡은 추성훈은 "한국에 시합이 있거나 개인적인 일로 방문하게 되면 공생원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목포 공생원은 1928년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 윤전도사가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일본



인 부인 다투치지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 등이 운영하며 지금까지 4천명의 아이들을 길러냈고 67명이 생활하고 있다. 추성훈은 재일교포 4세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세 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대학시절 전국대회 우승 등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1998년 한국에 건너와 부산시청에서 운동을 했으나 2001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가 귀화했다. 2004년 종합격투기 선수로 전향, 2006년 라이트헤비급 왕좌에 오르는 등 이종격투기 스타로 떠올랐다. /목포=이선성기자 sslee@kwangju.co.kr

89세에 한글 깨치고 91세에 수필가 되다

광양 김용전 할머니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고, 책을 읽고 연필로 글을 쓸 줄 아는 이 기쁨에 나는 세상을 살아가요." 2년전 한글을 깨운 91세 할머니가 수필 작품을 선보여 자란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김용전 할머니. 1917년생인 김 할머니는 일반인들의 수필을 주로 게재하는 월간지 '참 소중함' 4월호에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신 김해씨'라는 제목의 수필을 실었다. 지난 2006년 광양노년복지회관에서 한글을 배운 것을 계기로 '아

마추어 수필가'로 등단한 것. 김 할머니는 자신의 수필을 통해 "생활사 어렵만 탓하며 자식들마저 귀찮게 여기며 소홀히 하는 나이 많은 우리를 지도해주는 복지회관이 생겨 나를 다시 살게 하니 얼마나 기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하루 글을 배우며 가는 신기함은 나를 더욱 살아가게 힘을 준다"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밝혔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관리자 연찬회'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경환)은 2일 목포 향도초등학교에서 '목포지역 특수학급 설치학교 관리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나주, 순천권역으로 나뉘어 4일까지 계속된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5·18기념문화센터, 5·18공원서 나무심기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임채관) 임직원과 시민들은 지난 1일 '공원 정비의 날'을 맞아 5·18기념공원에서 참나무 150 그루를 심었다. (5·18기념문화센터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박정수(만호초교 교장)씨 장남 주형(서울경찰청 수사과)군 신현오씨 차녀 영희(고려대부속병원)양=6일(일) 낮 12시10분 광주 삼부지구 예술의전당 2층 리셉션홀.
▲최병표씨 장남 웅(광주지방변호사회 사무국)군 김정근씨 장녀 현숙양=5일(토) 낮 12시30분 교직원 공개회관 6층 예식홀.
▲박위선(재미교포)씨 아들 이경민군 공상순(여수시 정보통신과장)씨 딸 진아(보령제약)양=5일(토) 오후 2시 여수시청 앞 포에버웨딩컨벤션 1층 사랑홀.
▲목포고 5회 동창회(회장 유명명) 월례회=4일(금) 오후 6시30분

금강산산단. 224-0808.
▲재광 순천중고등학교 동문테니스 월례대회=5일(토) 오후 2시30분 임동 일신방직코트. 016-652-8040.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회지 시조선산 한식향사 참례=5일(토) 오전 6시 상록회관 앞 출발. 011-9615-8567.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재정)=6일(일) 오후 7시 두암동 조선의 땅. 262-3326.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용 사용할 경우 062-1366.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도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도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

- 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 가치 및 환급금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 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

- 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230-4246~9.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8500.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촉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 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화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부음
▲이재욱(문성중·고교 설립자·이

- 시장)씨 별세 우행·기행부 부친상 박영채·오완선·조성문·이창수씨 빈부상=발인 3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20-3352.
▲정용근씨 별세 형일(한국화학)·대남(하동정씨 추선문화회)·기원(공단제일종합상사 대표)·문자·숙호·덕효씨 부친상 남창조·고영삼·김양훈씨 빈부상=발인 3일(목) 광주 한국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380-3041.
▲제갈현용(목포홍일교 설립자)씨 별세 윤(경운실업 대표)·성(현대건설 사무)씨 부친상 이원도(전 현대건설 부사장·전 전문건설조합 이사장)·박명현(전 여태산업 전무)씨 빈부상 임성순(원자력병원 과장)씨 시부상=발인 3일(목)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02-3010-2294.
▲김남례씨 별세 이기택·기범(회사원)·기홍(광일교 교사)·기영(자영업)·기중(자영업)씨 모친상 정영수(김포제관)씨 빈모상=발인 3일(목)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000.
▲김상욱씨 별세 대신씨 제씨상

- 홍기씨 백씨상=발인 3일(목) 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000.
▲최상호씨 별세 영철·중준·서규(건설업)씨 부친상 황철중·채운식씨 빈부상=발인 4일(금) 송정장례식장 1호. 941-4400.
▲조연상씨 별세 상우·동전씨 부친상 이순형·홍영구·조민현씨 빈부상=발인 4일(금)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09.
▲오중태(사진작가)씨 별세 승수(캐나다 자영업)·민자·영아·영혜씨 부친상 허길남(전 진도·고흥군수)·김용철(서울시립대 교수)씨 빈부상=하관애배 5일(토) 낮 12시 담양군 담양읍 삼관리 선영. 011-228-7767.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형제공원
가족님묘특별분양
☎(062)222-0201